

# ESG 동향 뉴스 클리핑

이슈 검색 기간: 2025.6.27(금) ~ 2025.7.3(목)

제공일시 2025 7 11 Fri

담 당 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

문 의 02 398 6432

# ESG 동향 뉴스 클리핑

이슈 검색 기간: 2025.6.27(금) ~ 2025.7.3(목)

제공일시 2025 7 1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

## 글로벌 정책

### 1. 美 반도체 공장 투자 세액공제 35%로 확대... 전기차는 조기 종료

- 미국 상원이 1일(현지시간)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25%에서 35%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'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'을 통과시킴. 하원 표결을 거쳐 오는 4일 대통령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음
- 이번 조치는 2022년 제정된 '반도체 및 과학법(CHIPS and Science Act)'의 핵심 조항을 보강한 것임
- 법안에는 세액공제 외에도 △총 390억달러(약 53조원) 규모의 공장 건설 보조금 △최대 750억(약 102조원) 달러의 대출 지원이 포함돼 있음. 인텔, TSMC, 마이크론,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등이 보조금 수혜 대상으로 확정된 상태임

[\(아시아경제 2025.7.2\)](#)

### 2. '희토류 무기화' 中, 광물자원법 개정 시행... "안보차원 관리 강화"

- 중국이 1일부터 '광물자원 안보'에 중점을 둔 개정 광물자원법을 시행한다고 평파이신문 등이 보도함. 광물자원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된 것은 29년 만임. 보도에 따르면, 지난해 11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통과한 개정 광물자원법은 이날 본격 시행됨
- 세부 내용을 보면, 1조에 '국가 광물자원 안전 보장'을 목표로 추가했고, 3조에서는 광물자원의 개발과 활용, 보호와 관련해 따라야 할 원칙으로 '전반적인 국가 안보 관점을 관철하고 발전과 안전을 총괄한다'고 명시함
- 또, 경제안보, 국방 등 측면에서 중요한 광물자원을 전략광물 목록으로 통합 관리·보호하고, 비상 대응을 위한 광물 자원 비축 체계도 구축하도록 법제함

[\(뉴스1 2025.7.1\)](#)

### 3. 日, 탄소 배출 구매 한도 10%로 제한... 탈탄소 실효성 강화

- 일본 정부가 2026회계연도에 본격 도입할 탄소배출권거래제에서 '탄소 크레딧' 구매 한도를 총 배출량의 10%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일 보도함
- 보도에 따르면,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열리는 첫 전문가 회의에서 이 같은 제도 운용 방향을 공식 발표할 예정임. 일본의 제도 도입은 지난 5월 개정된 그린트랜스포메이션(GX) 관련 법에 따라 확정됨
- 일본 정부는 매년 약 300~400개 기업에 대해 이산화탄소(CO<sub>2</sub>) 배출 상한선을 설정하고, 연간 배출량이 10만 톤 이상인 기업은 2026회계연도부터 참여가 의무화됨 철강, 석유, 자동차, 화학 등 대규모 배출 업종이 중심이 될 전망임

[\(뉴스스 2025.7.2\)](#)

## 국내 정책

### 1. 해수부, '한-호주 녹색해운항로 구축' 사전타당성 연구 추진

- 해양수산부는 한-호주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사전타당성 연구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힘
- 우리나라와 호주는 사전타당성 연구를 통해 양국 간 △친환경 연료 공급망 분석 △항만별 수출·입 화물 및 수요 동향 조사 △연료공급을 위한 항만 인프라 체계 연구 △운항에 적합한 선박의 종류 평가 등 녹색해운항로 선정을 위한 핵심 과제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임
- 이번에 착수하는 사전타당성 연구는 지난 2월 한-호주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이후 첫 단계임

[\(조선일보 2025.6.29\)](#)

### 2. '3% 성장동력' 열쇠, AI서 찾는다... 기재부도 'AX 맞춤형' 모드

- 기획재정부가 인공지능(AI)을 키워드로 성장엔진 확보를 위한 밑그림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짐
- 국정목표인 '3% 성장동력'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AI '3대 강국' 도약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임.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범주를 뛰어넘어 전 부처 차원의 총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임
- 29일 국정기획위원회와 범부처에 따르면,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추가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짐
- 세부적으로는 제조업, 비제조업, 공공의 3대 분야별로 'AX 로드맵'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짐

[\(연합뉴스 2025.6.29\)](#)

### 3. 연기금에 일반 국민까지 참여... '공룡급' 첨단전략기금 조성하려는 정부

- 정부가 AI·반도체·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함. 0%대 성장률 위기가 현실화한 상태에서 첨단산업에 '마중물'을 부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복안임
- 27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,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·과학기술정보통신부·한국산업은행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첨단산업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함
- 첨단산업 지원은 크게 △재원 마련 △증액 △자금 집행 등 세 단계로 나눠 추진함
- 먼저, 50조원 규모 종잣돈 마련에 속도를 냄. 정부는 산업은행 산하에 50조원 규모 첨단산업기금을 연내 설치하고, AI·반도체·에너지·방위산업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임
- 정부는 또 일반 국민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공모펀드도 설정하되, 투자 위험을 줄이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함

[\(매일경제 2025.6.27\)](#)

## 글로벌 기업

### 1. 니켈 채굴부터 배터리셀까지... 인나·CATL 전기차 프로젝트 착공

-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인 중국 CATL이 인도네시아에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인 니켈 채굴에서 배터리셀 생산까지 이어지는 약 60억달러(8조1천억원)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생태계 조성 사업을 시작함
- 30일 자카르타 포스트 등에 따르면, CATL은 전날 서자바주 카라왕에서 인도네시아 배터리 공사(IBC), 국영 광산회사 아네카 탐방(안탐)과 합작으로 배터리셀 공장 착공식을 갖고, 인도네시아 전기차 배터리 생산 프로젝트 시작을 알림
- CATL인 이곳에 12억달러(약 1조6천억원)를 투자해 15기가와트(GW)에 달하는 배터리셀을 생산한다는 계획임

[\(연합뉴스 2025.6.30\)](#)

### 2. 美 대법원, 엑손모빌 사상 최대 규모 환경법 위반벌금 확정

- 미국 연방대법원이 엑손모빌에 부과된 1425만달러(약 192억8025만원)의 민사 벌금을 최종 확정함. 해당 벌금은 엑손모빌이 텍사스 정유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해 청정대기법(Clean Air Act)을 위반한 데 따른 것임
- 로이터통신은 1일(현지시각) “대법원이 관련 소송에 대한 심리를 종결함에 따라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하급심의 벌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”고 전함

[\(임팩트온 2025.7.2\)](#)

### 3. 美 최대 희토류 기업 에너지퓨얼스, 호주 프로젝트 승인받아... 포스코인터 반사익 기대감

- 미국 희토류 기업 에너지퓨얼스가 호주 희토류 개발 사업의 인허가를 획득함. 에너지퓨얼스는 27일 “호주 빅토리아주(州) 정부가 위메라 지역 ‘도널드 희토류 및 광물 모래 프로젝트’의 건설 및 운영 계획을 승인했다”고 밝힘
- 에너지퓨얼스는 호주 광물모래 채굴업체 아스트론과 합작 투자로 이 사업을 추진함. 에너지퓨얼스는 1억8300만호주달러(약 1600억원)를 투자해 사업 지분 49%를 확보할 예정임

[\(더구루 2025.6.27\)](#)

### 4. 중국 BYD, 9400만 달러 투자... 헝가리 거점 삼아 유럽 전기버스 시장 공략

-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 비야디(BYD)가 헝가리 코마롬에 9400만달러(약 1282억원)를 투자해 전기버스와 트럭 공장을 신설하고 유럽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함. 공장이 완공되면 BYD의 유럽 내 연간 생산량은 기존의 3배 수준인 1250대까지 늘어남
- 27일(현지시각)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, 페테르 시야르토 헝가리 외무장관은 이날 이 같은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함. 헝가리 정부도 910만달러(약 124억원)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힘을 보탬

[\(글로벌이코노믹 2025.6.28\)](#)

## 국내 기업

### 1. 삼성 E&A 주도 컨소시엄, 멕시코서 세계 최대 그린·블루 메탄올 프로젝트 전략적 협업 합의

- 멕시코에서 삼성E&A(Samsung E&A)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인 215만t 규모의 청정(그린·블루) 메탄올 공장 건설이 본격화됨
- 삼성E&A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컨소시엄이 미국 트랜지션 인더스트리즈(Transition Industries LLC)와 함께 멕시코 시날로아주 아후에 '파치피코 멕시놀(Pacífico Mexinol)' 메탄올 플랜트의 전략적 협업에 대해 합의함
- 이번 프로젝트는 총 4조원대(전체 투자 규모로 추산) 규모로, 2025년 착공을 시작해 2029년 가동을 목표로 한다고 멕시코 현지 언론인 루즈노티시아스(luznoticias)가 지난달 30일(현지시각) 보도함

[\(글로벌이코노믹 2025.7.1\)](#)

### 2. 포스코이앤씨, 1.5조원 규모 태국 LNG 터미널 수주

- 포스코이앤씨가 태국에서 1조5000억원 규모 'Gulf MTP(Map Ta Phut) LNG 터미널'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1일 밝힘
- 지난달 30일 태국 방콕에서 포스코이앤씨와 태국 걸프 디벨로프먼트(Gulf Development)가 25만m³ 용량의 LNG 탱크 2기와 하역설비, 연 800만톤의 기화 송출 설비를 건설하는 국가 차원의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
- 'Gulf MTP LNG 터미널'은 태국 최초의 민간 합작 LNG 터미널 건설 사업임

[\(스마트에프엔 2025.7.1\)](#)

### 3. LG화학, 中 기업 손잡고 태양광 필름 소재 시장 공략

- LG화학이 중국 태양광 장비 기업 '진웨이얼 지능형 장비(金韦尔智能装备, 이하 진웨이얼)'와 손잡고 글로벌 태양광 필름용 소재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음.
- LG화학은 충남 대산공장에서 생산한 폴리올레핀엘라스토머(POE)와 에틸렌-초산비닐 공중합체(EVA)를 공급하고, 진웨이얼은 압출·적층 등 필름 가공 장비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원함

[\(더구루 2025.6.30\)](#)

### 4. HD현대일렉트릭, 노르웨이 데이터센터에 전력기자재 공급… 유럽 공략 본격화

- HD현대일렉트릭은 최근 노르웨이 데이터·통신 인프라 전문업체 벌크 인프라스트럭처와 전력 기자재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(MOU)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힘
- 이번 협약을 통해 벌크 인프라스트럭처가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건설 프로젝트의 기자재 입찰 우선 참여권을 확보함

[\(아주경제 2025.6.29\)](#)

# Weekend ESG Insight

이슈 검색 기간: 2025.6.27(금) ~ 2025.7.3(목)

제공일시 2025 7 11 Fri

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

문의 02 398 6432

## EU 지속가능 공시규제 완화에... 유럽 198개 기업·기관 “핵심 취지 훼손 안돼”

- 유럽연합(EU)이 추진 중인 지속가능성 규제 간소화 패키지 ‘옴니버스 1(Omnibus I)’을 둘러싸고 유럽 주요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집단 반기를 들고 나섰다.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지침(CSRD)과 공급망실사법(CSDDD)의 주요 내용을 대폭 축소하는 개편안이 유럽 ESG 정책의 골격을 흔들 수 있다는 경고임

- 1일(현지시간) 유럽 지속가능 투자기관연합 유로시프(Eurosif)에 따르면, 노키아(Nokia), 알리안츠(Allianz), EDF, 이케아 모기업 잉카그룹(Ingka Group) 등 총 198개 기업 및 금융기관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“과도한 규제 완화는 EU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, 지속가능한 금융전략과도 어긋난다”며 규제의 핵심 요소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음

- 보도자료에 따르면, 이번 공동 성명에는 금융기관 84곳, 일반 기업 29곳, 서비스 제공업체 42곳, 시민사회 및 NGO 등 43곳이 참여했음. 참여 기업으로는 알리안츠, 미로바, 트리오도스은행, 이케아 모기업 잉카그룹, 바텐폴 등 다국적 대기업과 기후변화에 관한 기관투자자그룹(IGCC), 책임투자원칙(PRI) 등 국제 투자자 네트워크도 동참했음

- 유럽연합 집행위원회(EC)는 지난 2월 옴니버스1 패키지를 공개하며, CSRD 보고 대상 기업의 약 80%를 제외하고 대기업 위주로 간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음

- 참여 기관들은 이번 공동 성명을 통해 규제 간소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“지속가능성 공시, 전환 계획, 기후 목표, 기업 실사 등에 관한 규정은 EU의 경제적·환경적 목표를 달성에 필수적”이라고 설명했다

- 또, “이미 많은 선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채택한 수준보다 낮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시장 선진화 흐름을 역행하는 조치”라며, “규제의 취지와 실질적인 효과까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”고 설명했다

- 특히, ESG 공시의 핵심 원칙인 ‘이중 중요성(double materiality)’을 유지하고, 국제 기준(GRI, ISSB, TNFD)과의 상호운용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

- 이번 성명은 규제 간소화와 지속가능성 규제가 양립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, 다섯 가지 개선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했음

- 첫째, CSRD의 핵심 원칙인 ‘이중 중요성(double materiality)’을 ESG 전 범주에 일관되게 적용하고, 국제 기준(GRI, ISSB, TNFD)과의 상호운용성(interoperability)을 유지하면서 ERS를 간소화하는 방안임

- 둘째, CSRD의 3차 연도 적용 대상은 기존 비재무정보공시지침(NFRD)과 동일하게 직원 수 500명 이상, 연 매출 4억5000만유로(약 7250억원) 이상 기업으로 설정하는 방안임. 이는 이미 보고를 시행했거나 준비한 기업의 규제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임

- 셋째, CSDDD의 기후 전환 계획(climate transition plan) 수립 및 이행 의무를 유지하되, ‘최선의 노력(best efforts)’으로 계획을 이행하는 방안임. 이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 아닌 이행 노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미임

- 넷째, 가치사슬 관련 기준은 단순화하되, 투자자와 기업 간 지속가능성 정보가 충분히 교환될 수 있도록 VSME(중소기업 가치사슬 기준) 이상의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임
- 다섯째, CSDDD의 핵심 조항을 유지하고, 기업의 인권·환경 실사 의무를 유엔 기업과인권 이행원칙(UNGP), OECD가이드라인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지속할 것을 촉구했음
- 유로시프는 성명을 통해 “책임 있는 기업과 투자자들은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아래서만 ESG 경영에 대한 중장기적 투자를 지속할 수 있다”며 “규제 완화가 아닌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유지가 지금 EU가 해야 할 일”이라고 강조했다

[\(임팩트온 2025.7.3\)](#)